

전주시 FIFA U-20월드컵 준비 박차

월드컵경기장 시설 개보수·자원봉사자 모집·개최도시 운영본부 준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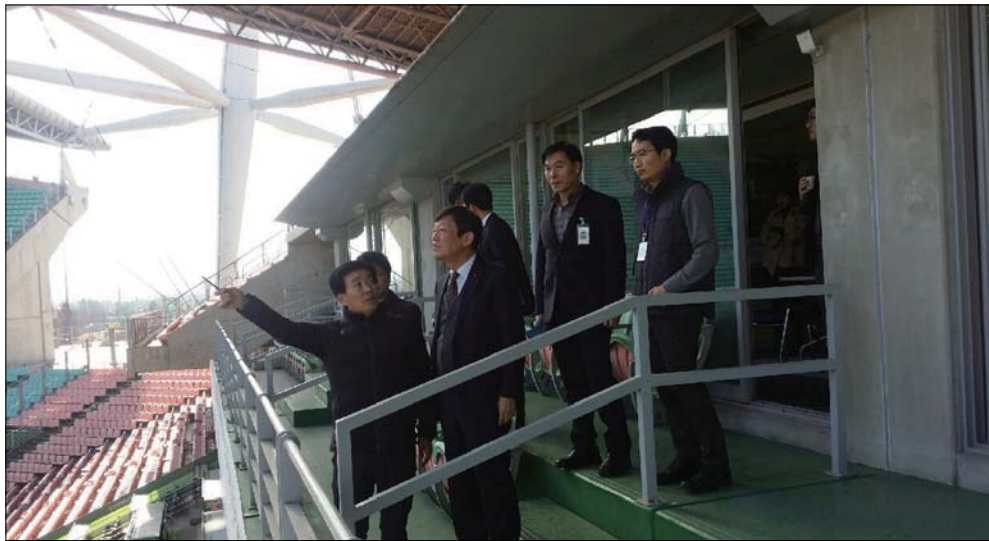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가 1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시가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주월드컵경기장 시설 개보수와 자원봉사자 모집, 개최도시 운영본부 준비 등 대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U-20월드컵은 올 한해 전주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축제들 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행사로, 백승호·이승우 등 미래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축구계를 이끌어갈 유망주들이 대거 참가하는 올해 대회는 오는 5월 20일 전주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6월 11일까지 국내 6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특히 전주시는 시민들의 축구 열기에 힘입어 FIFA U-20 월드컵 유치에 머물지 않고 결승전과 함께 대회 하이라이트로 손꼽히는 개막전을 개최함으로써 대회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됐다. 이번 U-20 월드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의 도시 전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시는 원활한 경기 진행으로 대회를 성공리에 치러내기 위해 현재 월드컵경기장 시설 전반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전광판을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송출방식으로 교체, 관람객들이 경기장의 모습을 좀 더 생생한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잔디 전면 교체와 그라운드 확장 등 경기장 내 개선공사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가 1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시가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주월드컵경기장 시설 개보수와 자원봉사자 모집, 개최도시 운영본부 준비 등 대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를 진행하고, 음향·조명·통신시설 정비와 주차장, 내부도로 공사 등 7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한 시설 준비가 이뤄진다. 새롭게 단장될 월드컵경기장은 오는 3월로 예정된 FIFA 최종 실사를 거쳐 4월이면 전주성의 위용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대회 기간 그라운드 안팎을 누비며 전주의 성공 개최를 이끌어줄 200명의 자원봉사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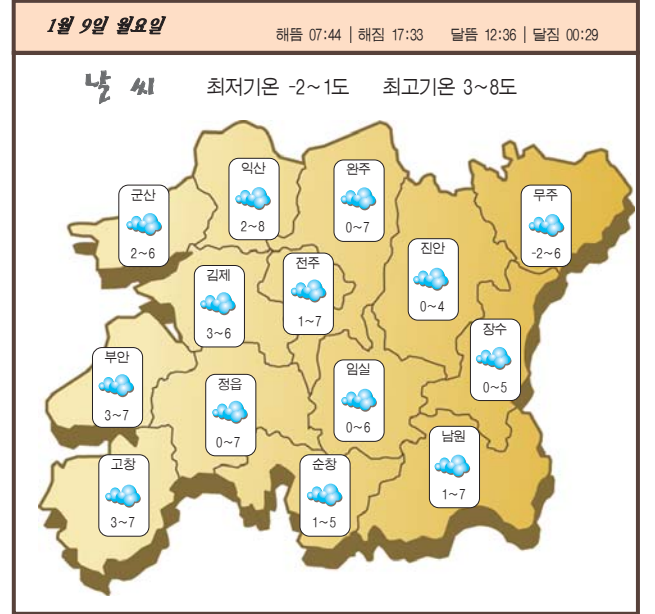
를 심사하고 면접심사와 교육훈련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시는 U-20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2월 중 전주시장과 전라북도축구협회장을 공동 본부장으로 한 개최도시 운영본부를 가동하는 등 전담조직도 확대하기로 했다. 운영본부는 총무지원팀, 홍보마케팅 등 4개 팀 30여 명으로 구성되며, 개최도시 운영본부가 운영되면, 성공 개

최를 향한 전주시의 대회 준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월드컵이 전주를 글로벌 축구 도시로 견인하는 문화월드컵으로 치르기 위해 시는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덕진공원 등 지역 명소를 중심으로 거점 공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연계해 세계인과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 실시

전주시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방문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저 출산 문제 해소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체계적인 산모영양관리와 위생관리, 모유수유지도, 신생아돌보기(목욕, 제대관리, 세탁물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소는 그간 서비스 기간이 일률적이었던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 올해부터는 출산유형별로 서비스기간을 다양화하고 다산 장려를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대상자의 경우, 단태아일 경우 자녀수에 무관하게 서비스 제공기간이 10일이었으나, 올해는 출산순위에 따라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

아 20일로 늘어난다. 또,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기간이 다양화 된다.

삼태아 이상이거나 중증 산모의 경우는 표준 지원일수 20일을 이용할 수 있고, 기간연장을 통해 최대 25일 까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본 지원 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에 따라 선정된다.

회귀난치성질환자 산모와 장애인 산모,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주여성 산모, 만 18세 미만 미혼모 산모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산모 신분증이며, 산모 또는 가족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전주시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도교육청 대입 대면 상담실 진학 지도 역할 '톡톡'

10일간 운영 결과 778건 상담 진행하는 등 호응

전북도교육청의 대입 대면 상담실이 진학 지도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 대입 대면상담실을 10일간 운영한 결과, 778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루에 60명~80명이 대입 전문 상담교사를 통해 지원 대학에 대한 정보와 체계적인 지원 전략에 대한 조언을 받은 것.

이번 대면상담실 운영을 위해 총 31

명의 전문 상담교사들이 참여했으며 12월 22, 23일에는 군산과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상담에 참여한 수험생과 학부모 600여명 대상 설문조사한 결과, 44%가 매우 만족, 43%가 만족 등 전체 응답자 중 87%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수험생들은 입시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지원 희망 대학 정보, 지난해 정시

입시 결과 정보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또한 학생 중에는 "현실적인 상담, 생각하지 못했던 학과 안내에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남기는 등 특별한 만족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올해에는 상담교사 수를 좀 더 확대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상담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상담을 해준 상담교사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수험생들이 정사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대면 상담실은 맞춤형 진학 상담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매년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에 맞춰 운영해오고 있다.

/정해은 기자

'도우' 박미순 대표, 전북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 전달

전북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도우' 기업의 박미순 대표이사가 전북대학교에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최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박미순 대표이사가 "우수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대학측에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이에 대학측은 박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박 대표는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은 전북대가 대학만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 인재를 길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